

투데이 칼럼

‘맑은 물’ 지켜온 장수(長水), 이제는 정당한 권리를 찾을 때다

장수군의 지명에는 ‘갈게 뻗어 흐르는 물길(長水)’의 형상이 그대로 담겨 있다. 실제로 관내 7개 읍면 중 다섯 곳의 명칭에 물(水)과 시냇물(川), 계곡(溪)을 뜻하는 한자가 들어있을 만큼 장수는 물의 고장이다. 이름이 ‘물이 나눠지는 마을’인 수분리(水分里)에는 ‘지붕 위에 떨어진 빗방울이 남쪽으로 흐르면 섬강이 되고 북쪽으로 흐르면 금강이 된다’는 말이 있는데, 이 지역이 바로 영호남과 충청을 아우르는 강의 출발점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그러나 이 천혜의 지리적 축복은 역사적으로 장수군민들에게 축복이 되고 있다. 대한민국 수자원의 시원(始原)이라는 자부심은 각종 규제와 무관심 속에 빛이 바랬다. 물을 책임지는 지역이 물의 혜택에서 멀어지는 역설, 장수군이 마주한 이 구조적 모순의 정답에 바로 ‘동화댐’이 있다. 총저수량 3,200만 톤의 동화댐은 장수뿐만 아니라 남원, 임실, 순창, 곡성 등 이웃 지역까지 농업용수와 생활용수를 제공한다. 축수량 4,000개가 넘는 넓은 논밭을 적시고, 하루 17만 명의 샤워와 세탁, 설거지에 쓰일 만큼의 양이다. 값어치를 가볍게 매길 수 없는 사회적·공익적 역할이다.

하지만, 깨끗한 물을 지키기 위한 노력과 희생 이면에는 합당한 혜택과 지원에서 배제되고 있는 현실이 자리 잡고 있다. 현행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댐건설



최한주 장수군의회의장

관리법’은 다목적댐을 ‘기후에너지 환경부장관이 건설하는 댐으로서 특정용도 중 물 이상의 용도로 이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탓에, 동화댐이 실질적으로 다목적댐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초 농림부가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 건설했다는 이유로 법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 것이다. 정당한 보상은커녕 여의도보다 넓은 양이 상수원 보호구역 규제로 발이 묶인 상태다. 댐의 혜택은 광역적으로 퍼지지만, 그로 인한 부담은 오롯이 장수군이 떠안는 기형적인 구조이다.

장수군의회의 그동안 농지전용, 건물신축, 상행위 등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지장을 받는 규제지역 주민들을 위해 실질적인 지원대책 마련을 당국에 여러 차례 요구한 바 있다. 특히, 지난달에는 ‘동화댐 댐건설관리법 적용 촉구 결의안’을 채택한 데 이어, 농림축산식품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국토교통부,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등 관련 부처와 기관에 법률과 제도 정비를 강력히 촉구하기도

했다. 만약 동화댐이 그 기능에 걸맞은 법적 지위를 인정받았다면, 국비 지원을 통해 낙후된 상류 지역의 소득 증대와 복지 향상이 가능했을 것이다. 법적 영역 이외에도 이러한 불합리가 존재한다. 장수에 있는 동화댐의 관리를 한국농어촌공사 남원지사가 맡고 있다 보니, 긴급 대처와 민원 해결 상황에서 장수군은 철저한 ‘객체’로 밀려나 있다. 주민 편의와 행정 체계 일관성을 위해서 관리 업무를 조속히 무전장지사로 이관해야 한다.

‘물의 불평등’은 이곳뿐이 아니다. 금강 수계의 거점인 ‘용담댐’을 바라보는 장수군민의 박탈감 또한 크다. 장수군은 용담댐으로 유입되는 물의 최상류 발원지로서, 댐 수질 보전을 위해 수변구역 지정 등 엄격한 개발 행위 제한을 받고 있다. 또한 댐 주변 찾은 안개로 인한 농작물 피해, 하천 유지유량 부족으로 생태계 악화 등 유무형의 손실 또한 커져야 되겠다. 하지만 주민들은 다른 인접 시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체감되는 혜택

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한다. 맑은 물을 내려보내 대가가 고작 ‘규제와 낙후’라면, 더 이상 상류 지역이 희생을 감내해야 할 명분이 없다. 용담댐 상류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보상 체계와 지원 확대가 절실한 이유다.

아울러 하천 정책의 현실화도 시급하다. 현재 장수군 관내를 흐르는 금강 상류 구간은 국가 수계의 시작점임에도 불구하고 지방하천으로 분류되는데, 물줄기가 진입문으로 들어서면 순간부터 용담댐까지는 국가하천으로 지정되어 정부가 직접 관리한다. 물길은 이어져 흐르지만, 예산과 책임만 행정의 경계에서 끊기는 셈이다. 열악한 지방 재정만으로는 홍수와 가뭄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 현재의 이원화된 관리 방식은 국가 수자원 관리의 효율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상류 지역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한다. 한시라도 빨리 댐건설에서 시작되는 주요 물길을 국가하천으로 승격시켜,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정비와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장수군이 정부에 요구하는 것은 특혜가 아니다. △동화댐의 댐건설관리법 적용을 통한 정당한 지원 △용담댐 상류 지역에 대한 현실적인 보상 확대 △금강 상류 하천의 국가하천 승격 등 ‘물 주권’의 정상화를 말하는 것이다. 장수의 물이 상생과 발전의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정책의 물길을 터주어야 한다. 이제는 맑은 물을 지켜온 이들이 정당한 권리를 찾을 때다.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일본 ‘올해의 인물들’ 들어간 2025 하고이타



3일 일본 도쿄의 전통 인형 제작업체 규게쓰에서 이곳 직원이 2025년 하고이타 나무 채를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나무 채에는 최근 대만 발언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디자이너 사나에 일본 총리 등이 디자인돼 있다. ‘하고이타’는 배드민턴 라켓 모양의 나무판으로 된 전통 놀이기구로 최근에는 올해의 인물들을 디자인해 새해 장식품 등으로 제작한다.

미 특사단과 종전안 논의하는 푸틴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오른쪽 세 번째) 러시아 대통령이 2일(현지 시간) 러시아 모스크바 크렘린 상원공에서 스티브 윌트코프(왼쪽 가운데) 미국 특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령 사위 재러드 쿠슈너(왼쪽 세 번째)와 회담하고 있다. 이날 우크라이나 종전안을 놓고 5시간 동안 논의했으나 별다른 성과는 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설

제36회 전북서예대전

제36회 전라북도서예대전이 11월 22일부터 27일까지 전북특별자치도 예술회관 전시실에서 열렸다. 서예는 단순한 필법의 기술이 아니다. 마음을 닦고 뜻을 세우는 도(道)의 길이라 하였다.

옛사람들은 ‘수양심성(修養心性) 정중용필’이라 하여 마음의 수양이 곧 글씨의 근본임을 강조했다. 감동을 지키되 새로운 감각과 시대의 숨결을 담아낸 작품은 서예의 미래를 밝히는 등불이 될 것이다. 서예인들이 앞으로도 변함없는 자세로 창작에 힘써 서예 예술이 우리 지역을 넘어 세계 속에서도 빛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

한편 제36회 전라북도서예대전에서는 유영호(65)씨가 예시 작품으로 영예의 대상에 차지했다. 이번 대전은 (사)한국서예협회 전북지회가 주관해 전북예술회관에서 열렸다.

올해는 8개 부문에 총 376점이 접수됐고 대상 1점을 비롯해 우수상 3점, 삼체특선 21점, 삼체입선 33점, 특선 45점, 입선 128점 등 총 231점 입상작이 선정됐다.

심사를 맡은 김명석 심사위원장은 “전통과 조화를 이룬 작품이 많았다. 특히 유영호 작가의 작품은 호방한 운필과 절제된 조형, 기운이 생동하는 필획으로 심사위원의 만장일치로 대상에 선정됐다”고 평했다.

대상작인 유영호 씨의 ‘전가 사시 중동-에서’ 외에도 우수상에 박경주 ‘공자전 시-전서’, 오미영 ‘설매-문인화’, 이다기의 ‘이해인 시 새의 말-글’이 각각 선정됐다.

입상작 시상식은 11월 22일 오후 3시 전북예술회관에서 열렸으며 이날부터 27일까지 전북예술회관에서 수상작 전시가 진행됐다.

제1회 통일예술제

한반도의 평화 정착과 통일 시대 도래를 위한 ‘통일 희망을 춤추다’ 제1회 전북특별자치도 통일예술제가 11월 15일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연지홀에서 열렸다.

행사는 전북평화통일지도자협의회와 전북문화예술인연합회가 공동 주최하고, 날마루무용단이 주관했다.

이번 제1회 통일예술제 행사는 전북의 주요 기관 사회단체장 등 5백여 명의 도민들이 참석하여 통일의 역량을 한데 모으기 위해 개최됐다.

예술의 은유는 때로 정치의 직설법보다 강하다. 평화는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다. 평화로운 한반도를 향한 뜨거운 마음을 모을 때이다.

한 곡의 노래, 한 편의 시가 얼어붙은 강변을 녹이고 평화의 새 시대를 여는 힘이 될 것이다. 예술을 통한 평화의 메시지가 도민의 마음속에 깊이 스며들

어 우리 사회의 분열을 치유하고, 세대와 지역, 남과 북을 잇는 다리가 되어야 할 것이다.

통일의 염원을 감성으로 녹여내는 이번 행사는 한반도와 세계를 향한 울림으로 확산될 것이다.

우리 국가의 백년대계는 물론 항구적인 관점에서 지금 이 시대는 중요하다. 새정부의 남북의 획기적이고, 전진적인 변화를 선도해나가는 데 있어서 민간 차원의 마중물이 절실해지고 있다.

정병수 공동회장은 “전통 예향의 도시 전북지역에서 역사적인 2025년, 광복 80주년을 맞아 전국 16개 광역시도 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개최하는 통일예술제이니만큼, 우리 모두 자긍심을 갖고 이 자리에 함께 했으면 좋겠다. 통일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이라며 제반 남북 평화 통일 운동에 관심을 갖고 협력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

전주매일 홈페이지 www.jjmaeil.com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